제2차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마침내 제로 섬 게임 벌어져

1929년의 제1차 세계 경제 대공황(世界 經濟 大恐慌)에 못지않은 제 2차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 일본 경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1990년대에 일본 금융 업계에 덮쳤던 불경기에서 재건한 전례의 가르침을 미국이나 EU가 어떻게 활용할지 그 능력에 따라 현재의 세계 금융 대공황이 수습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의 금융 위기는 복잡하게 얽힌 증권화품(證券化品)이, 세계에 정체조차 모를 정도로 여기 저기 뿌려져서, 지금 그들 증권들이 휴지처럼 가치가 떨어져서, 그 회수 가치조차 짐작할 수 없으니 두렵다.

금융 및 증권 각사가 실속이 없으면서 부풀은 허업(虛業)의 이익 확대에 들떠 있다가 그 버블(bubble : 거품)이 터진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부풀어 올랐던 허업(虛業) 활동이 원상태로 수축되면서 사태가 바로 잡히지 못하면 세계 경제는 수년간 안정을 되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 과학원 세계 정치 경제 연구소(中國 科學院 世界 政治 經濟 硏究所)의 장명씨(張明氏)도 “미국이 7,000억 달러의 금융 안정 법안(金融 安定 法案)을 성립시켰지만 이것으로 서브 프라임 론 위기(sub-prime loan 危機)가 끝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만약 7,000억 달러가 모두 문제의 금융 기관으로 자본 주입(資本 注入)된다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7,000억 달러를 불량 자산을 사들이는데 사용되면 금융 안전 법안의 효과는 제한된 일부에 그친다.”고 엄격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금융 공황을 해결하는 데는 다사다난(多事多難)한 문제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은 틀림없다.

장명씨는 중국의 장래에 대하여 비관적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업은 2009~2010년에 전혀 겪어 보지 못한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수입도 줄어든다.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의 수출도 줄 것으로 염려된다. 일본의 의식주 세 기둥도 흔들리게 된다.

중국수출 의존도가 큰 일본으로서는, 중국 국내에서 내수를 증가시켜 해결하려는 것이 유효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분명해진 것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갈수록 깊어지는 제로 섬 게임(zero-sum game) 시대에 어떻게 하여 살아남을지가 현실 문제가 되고 있다.

제로 섬 게임은 미국의 경제학자 레스터 서로(Lester C. Thurow)가 제안한 주장으로 이 요점은 한정된 시장에서 한쪽이 이익을 보면 반드시 다른 편은 그만큼 손해을 보게 되어 그 합이 제로가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승패의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만큼 혼란스러운 미국에서 소매점의 거인인 월마트(Walmart)가,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여러 동업자들 중에서, 홀로 이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유니크로는 경영 상태가 나쁜 여러 동업자들 중에서 이익을 올리고 있다. 최근 긴자에 자리를 잡은 H&M이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 국내 백화점의 합병이 많아지는 것도 제로 섬 게임에 이기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제부터의 경제는

제로 섬 게임에서 어떻게 이겨낼까, 그 우열을 진지하게 가려내게 된 시기가 된 것은 틀림없다.♣